Commentary
Korean J Med Ethics 2025;28(3): 195-200
https://doi.org/10.35301/ksme.2025.28.3.195

KJME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pISSN 2005-8284 eISSN 2234-3598

치과의료윤리 교육,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김준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교실, 조교수

Dental Ethics Education in Dentistry: Where Did It Come from and Where Is It Going?

Junhewk Kim*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Education,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Received: Jul 22, 2025
Revised: Aug 27, 2025
Accepted: Sep 1, 2025

***Corresponding author**
Junhewk Kim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Education,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Tel: +82-2-2228-3022
E-mail: MOLE0619@yuhs.ac

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nflict of interests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Acknowledgements
Not applicable.

Funding information
Not applicable.

Data availability
Data sharing not applicable to this article as no datasets were generated or analyzed during the current study.

ORCID
Junhewk Kim
https://orcid.org/0000-0002-9109-270X

Abstract

This commentary explor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current status of dental ethics education in South Korean dental schools, which was explicitly initiated by the 2017 accreditation standards from the Korean Institute of Dental Education and Evaluation (KIDEE). Although now mandatory in all 11 dental schools in the country, dental ethics education remains in its early stages, with a focus on professional integrity, ethical decision-making, altruism, and rationality. To addres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ental practice, including preventive and aesthetic care, intensive chairside communication, and business-related ethical issues, specialized ethics module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curriculum. Continuous improvements in curriculum design, faculty training, and evaluation methods are urgently needed. Most importantly, ongoing research and active discourse on dental ethics within the dental community are essential to enhancing dental ethics education.

Keywords: dental ethics, dental; education, medical, undergraduate; schools, dental; curriculum; history of dentistry

I. 서론

국내의 치과대학 의료윤리 교육, 또는 치과의료윤리(dental ethics) 교육이 국내 11개 모든 치과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의 2017년 인증기준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료윤리 교육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을 들 수 있다[1]. 이전의 인증기준은 주로 사회봉사활동 참여에 초점을 맞춘 "인문사회치의학" 영역의 기회 제공을 명시하다가[2], 2014년 개정 인증기준에서 처음 "국가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을 포함하고 그 첫번째 항목으로 전문직업성을 명기하면서 그에 따른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의 마련을 요구하게 되었다[3]. 그러나 이 시점까진 의료윤리 교육이 요청되었다고 말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

www.kci.go.kr

Author contributions
The article is prepared by a single author.

Ethics approval
Not applicable.

전문직업성은 의료윤리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치과대학에서 의료윤리 교육의 명시가 2017년에 이루어졌다면, 치과대학에서 의료윤리 교육은 2025년 현재 만 8년째 진행되고 있는 실천으로, 그 자체 내용이나 수행에 있어 아직 시작 단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있다.

Choi[4]가 횡적으로 의, 치, 간 의료윤리 교육을 고찰하였으며 치과대학의 의료윤리 교육 현황을 제시한 것은 치과대학 의료윤리 교육자로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교육으로선 너무도 짧은 역사와 구성을 지닌 치과대학 의료윤리 교육을 현재 상황만으로 고찰하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종적 고찰이 보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평은 국내 치과의료윤리 교육의 역사적 검토를 통해, Choi[4]의 분석을 보충하는 한편 역사적 관점에서 치과의료윤리 교육의 다음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II. 본론

1. 국내 치과의료윤리 교육

국내에서 치과의료윤리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2002년 논문[5]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논문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에 대한 분석을 치과의사의 윤리에 대한 촉구로 확장했으며, 동아시아 전통의 가치관, 전문직업성,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조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타적 서비스 정신과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이야말로 치과의사 윤리의 근거”라는 논문의 주장은 치과대학 의료윤리 교육의 두 가지 필요조건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치과의사 전문직에게 이타주의가 무엇인지 교육하는 것, 둘째, 사례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의료윤리 교육의 기본으로 지적되는 전문직업성과 의료윤리적 의사결정을 학생들이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함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교육과정에 포함되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했다. 예컨대, 2003년 한 치과대학에 수행된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료윤리 이슈 인식 설문 연구[6]는 “졸업반이나 신입생이나 의료윤리에 대한 의식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설문 결과를 통해 지적하고 “현 치과대학에서 미래의 치과의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윤리교육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것은, 당시까지 치과대학 의료윤리 교육이 진행되거나 관련 교과목이 설치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해당 조사가 진행되었던 시점 치과대학 학생이었던 필자 또한 대학에서 의료윤리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후 서서히 각 치과대학에서 의료윤리 교과목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확장이 진행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치과대학 교과목 확장의 과정을 살펴보자. Choi[4] 이전 치과대학 의료윤리 교육 현황에 대해선 네 번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첫째, 2008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연구다[7]. 해당 조사는 전국 11개 치과대학에 우편을 통해 의료윤리 교육 현황을 질의하였다. 응답한 10개 대학 중 치과의료윤리 과목 개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고 대답한 대학은 9개교였으나, 단독정규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3곳, 통합 과목 또는 PBL(project-based learning) 운영을 통해 교육하는 학교는 2곳이었다. 즉, 포괄적인 윤리에 관한 내용을 어떤 형태로든 다루고 있다고 각 치과대학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 의료윤리 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1/3이 되지 않았다. 2006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과의사윤리

www.kci.go.kr

헌장"을 공표하는 등 윤리에 관한 관심이 치과계 내에서 생긴 것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나, 윤리 교육 확충은 애초 몇몇 교수가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학교 당국에 요청한 결과였음을 당시 교수들은 회고한 바 있다.[1)]

둘째, 2010년 조사는 치과대학 인문사회치의학 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학 대상 설문이었다[8]. 11개 치과대학 모두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나, 치과의료윤리학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의료윤리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한 학교는 6곳("치과의료윤리", "치의학윤리", "사회치과윤리학(윤리)" 등)였다. 4개 학교는 "인문사회치의학V", "의료법학과 윤리", "새로운치과의사" 등 윤리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단, 이중 2개교는 "인문사회치의학I(전문직업성과 윤리)", "치과와 사회" 과목을 운영하여 일반 윤리 외에 전문직업성 교육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의 2008년 인증기준 및 2010년 1주기 인증체계가 인문사회치의학 교육과정을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여, "인문사회적 이해, 직업적, 윤리적 기준을 위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교육과정에 수립할 것을 요구한 것[2]에 대한 각 치과대학의 응답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의료윤리 교육이 교육과정에서 필수 항목이라는 인식은 이 시기에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의뢰하여 "치의학 윤리교육 체계화를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해당 보고서는 협회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비공개로 전환되었다[9]. 따라서, 치과의료윤리 교육과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18년 연구로서[10], 해당 연구는 전국 11개 대학에 의료윤리 과목 운영 여부, 교과목명 및 과목 설계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였다. 연구 결과, 6개 학교가 명시적인 의료윤리 과목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개 학교는 의료법과 윤리, 임상과 윤리, 또는 전문직업성 과목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2개교는 별도 의료윤리 과목을 설치하는 대신 PBL 또는 통합 과목에 내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설하였다. 단, 1개교는 전체 교과목 중 치과의료윤리를 1시간만 포함하고 있었다. 2010년 조사에 비하여 모든 치과대학이 치과의료윤리 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음이 확인되었으며, 기존 윤리 교육을 운영하던 학교 또한 그 내용을 보완한 상황이었다. 이것은 전술한 것과 같이 2017년 인증 기준 변화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시점부터 전국 모든 치과대학에서 의료윤리 교육이 명시적으로 제공되었다.

Table 1의 분석은 교육의 시계열적 팽창을 명확히 보여주나, 교육 내용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치과대학 의료윤리 교육과정을 분석한 것은 2012년 보고서에서 최초 시도되었으나 비공개 보고서로 남았다. 따라서, Choi[4] 이전까

Table 1. Changes in dental ethics education in South Korea

Article	Year conducted	Main findings	Changes in dental ethics education
Kang et al. [7]	2008	9 schools operate dental ethics course; only 3 schools have independent course for dental ethics.	Although all dental schools recognized the importance, fewer than 1/3 established medical ethics courses.
Lee [8]	2010	10 schools operate dental ethics course; 6 schools have dental ethics course, and 4 schools have dental ethics integrated curriculum.	KIDEE accreditation system includes humanities and social dentistry curriculum as evaluation criteria.
Lee et al. [9]	2012	[Data not available]	
Kim et al. [10]	2018	11 schools operate dental ethics course; 6 schools have dental ethics course, 2 schools operate multi-faceted dental ethics curriculum, and 2 schools manage PBL or integrated course with ethics.	Dental ethics education was explicitly provided at all dental schools nationwide due to 2017 KIDEE accreditation standard changes.

KIDEE: Korea Institute of Dental Education and Evaluation, PBL: project-based learning.

1) 해당 진술은 연구자 본인이 당시 치과대학 의료윤리 교육을 설계하거나 입안한 교수들에게 들은 것에 따른다. 별도 자료로 이를 정리한 바는 없으며, 추후 구술 자료를 구체화하여 발표할 것을 약속 드린다.

www.kci.go.kr

지 치과대학 의료윤리 교육내용을 검토한 것은 2018년 보고서가 유일하며 이 시점에선 최소한의 의료윤리 교육은 적어도 명목상으로 모든 치과대학에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치과의료윤리의 특징과 발전을 위한 제언

치과계의 의료윤리적 접근은 근대 치의학의 아버지, 피에르 포샤르(Pierre Foachard)의 저서 『치과 의사』에서 이미 그 맹아를 찾아볼 수 있다[11]. 또한, 의료계의 윤리 강령과 별도의 치과의료윤리 강령은 1866년 미국치과의사협회(American Dental Association, ADA)에 의해 미국에서 처음 제시되었다[12]. 그러나 현대의 치과의료윤리의 내용을 제안한 것은 1920년 미국치과의사학회(American College of Dentists)가 공포한 행동 강령이다. 이후 해당 문서는 확장되어 미국 치과대학 윤리교육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ADA 또한 1951년 해당 내용을 받아들여 윤리 원칙을 선언하였다. 미국에선 이후 주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윤리 사안에 대한 검토와 사례 기반 문제 해결을 다루는 논문이 시리즈로 발표되었으며, 2011년에는 치과대학 윤리교육 현황에 관한 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다[13]. 해당 보고서에서 다수 대학이 치과의료윤리 교과서로 채택한 책 Dental Ethics at Chairside 는 “치과임상윤리”라는 표제로 번역되었다.

국내에선 1971년 치과의사 윤리 강령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이후 한동안 강령을 낭독한 후 치협 행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 논문이 지적한 것처럼 해당 강령은 의료인의 체면 유지에 관한 구성원 대상의 요구였을 뿐, 현대 의료윤리의 접근 결과로 이해할 수는 없다[12]. 이후 2006년 치협은 치과의사 윤리선언과 치과의사 윤리헌장 및 지침을 제정하였으나[14], 해당 문헌은 치과의사만 접근 가능하고 현장과 유리된 채로 남아 있다.

이런 역사적 상황 아래 치과의료윤리의 내용은 의료윤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그 사안의 접근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국내에서 발표된 치과의료윤리 연구에 관한 검토는 Choi[4] 분석의 궤를 함께 하고 있으며, 경영 윤리에 관한 검토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15]. 거꾸로 말하면, 치과의료윤리는 기본적인 의료윤리의 내용에 경영 윤리를 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ADA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치과의료윤리 5원칙(의료윤리 4원칙에 “진실성(veracity)”이 추가된 형태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16]. 여기에서 진실성은 자율성에 수반하는 진실 말하기(truth-telling)가 아닌 치과 홍보, 치료계획 및 상담에 있어 내용을 부풀리거나 허위 사실을 포함해선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치과의 윤리적 사안에서 나타나는 특수성(경영 · 광고 · 과잉진료 문제 등)을 반영한다. 다시 말하면, 치과의료윤리는 의료윤리와 기본적인 접근이나 사례 이해, 문제 해결의 방식에선 차이가 없으나, 경영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가되면서 원칙 구성과 적용에 대한 변용이 생긴 분야라고 이해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치과 의료는 첫째, 예방 · 미용 진료가 “치료”와 분리되지 않고, 둘째, 침상보다는 진료실, 즉 “체어 옆(chairside)” 1:1 의사소통이 환자-의사 관계의 핵심을 구성하며, 셋째, 경영 · 광고 · 보험 청구가 진료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의료적 접근과 의료윤리 적용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 ADA의 윤리 원칙이 진실성을 별도 원칙으로 둔 이유도 환자 신뢰와 진료실-경영 간 이해충돌을 조정하려는 취지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치과의료윤리 교육은 기본 의료윤리 원칙 교육을 토대로, 진료-경영 갈등 사례 분석, 보험 · 청구 윤리, 과잉진료 예방 전략 등을 포함하는 치의학 윤리 모듈 구축을 주안으로

www.kci.go.kr

삼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까지 현대 의료윤리 자체에 대한 인식이 치과계에서 아직 충분치 않으며, 이에 대한 담론 형성이나 연구가 아직 매우 부족하다는 현실에 있다[17]. 따라서, 치과의료윤리 교육 정립에 필요한 것은 우선 의료윤리의 저변 확대와 이를 위한 치의학 분야 자체의 관심이라고 하겠다. 다시, 2011년 미국 56개 치과대학 대상 의료윤리 교육 설문이 "정규 교육 시간 부족"을 지적하며 윤리교육 심화 · 통합을 권고한 것처럼[12], 국내에서도 윤리교육 시수 · 평가 · 전담교원 확보에 대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윤리를 이해하고 치과의료윤리 교육을 맡을 교육자가 각 대학에 최소 한 명씩은 위치해야만 그 교육과 평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및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III. 결론

본 논평은 국내 치과대학에서 치과의료윤리 교육이 도입되고 발전해 온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현재 치과대학 의료윤리 교육의 실태와 특수성을 분석한 Choi[4]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국내에서 치과의료윤리 교육은 2017년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기준 변경으로 본격화되었으나, 여전히 초기 단계이며 교육과정의 확장 및 심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치과의료윤리 교육의 발전은 전문직업성과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모든 치과대학에서 의료윤리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Choi[4]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윤리 교육의 실제 내용이나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특히 치과의료윤리는 예방과 미용 진료, 진료실 내 밀착된 의사소통, 경영적 측면의 중요성 등 특수성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의료윤리 접근에 치과 특유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독립된 교육 모듈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 논평은 치과의료윤리 교육 내용과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자료의 부재, 그리고 아직은 짧은 역사로 인해 장기적 성과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앞으로의 연구와 교육 개발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치과계 내부에서 의료윤리에 대한 더욱 활발한 담론과 관심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Korean Institute of Dental Education and Evaluation (KIDEE). 2017 Accreditation Standards. KIDEE; 2017.
2. KIDEE. 2008 Accreditation Standards. KIDEE; 2008.
3. KIDEE. 2014 Accreditation Standards. KIDEE; 2014.
4. Choi EK. A review of undergraduate medical ethics education in medicine, dentistry, and nursing in South Korea. Korean J Med Ethics 2025;28(3):157-172. https://doi.org/10.35301/ksme.2025.28.3.157
5. Kang S. Professional ethics in dentistry. Korean J Med Ethics 2002;5(2):45-60. https://doi.org/10.35301/ksme.2002.5.2.45
6. Kim YJ, Yu MS, Kim SN. A survey of Korean students' perception of the school of dentistry toward the ethical problems. Korean J Med Ethics 2003;6(1):34-40. https://doi.org/10.35301/ksme.2003.6.1.34
7. Kang MS, Lee EY, Kim AH, et al. Current situation of teaching ethics in dental schools in

www.kci.go.kr

Korea. Korean J Dent Educ 2009;2(1):51-59.
8. Lee JY. The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tasks of teaching dental humanities in Korean dental schools and graduate dental schools. Korean J Dent Educ 2011;4(1):12-30.
9. Lee JI, Kang MS, Kang SI, et al. Research for the systematization of dental ethics education. Health Policy Institute; 2012.
10. Kim J, Lee S, Hwang C, et al. A design of basic curriculum development for dental ethics education. Health Policy Institute; 2020.
11. Fauchard P. Le chirurgien dentiste-ou traite des dents. Colonnes d'Hercule; 1746.
12. Ahn JH. The historical context of dental ethics. Korean J Med Ethics 2004;7(2):167-175. https://doi.org/10.35301/ksme.2004.7.2.167
13. Lantz MS, Bebeau MJ, Zarkowski P. The status of ethics teaching and learning in U.S. dental schools. J Dent Educ 2011;75(10):1295-1309. https://doi.org/10.1002/j.0022-0337.2011.75.10.tb05174.x
14. KDA. Dental ethics charter [Internet]. KDA; 2006 [cited 2025 Jul 22]. https://www.kda.or.kr/kdaDental/dentalEthics/dentalEthicsCharter/html.kda
15. Kim J. History of dental ethics research in Korea. In: 2023 Fall Symposium of Korean Academy of History of Dentistry. Seoul, Korea; 2023.
16. American Dental Association (ADA). Principles of ethics &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ADA; 2023.
17. Holden ACL. Exploring the evolution of a dental code of ethics: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BMC Med Ethics 2020;21(1):45. https://doi.org/10.1186/s12910-020-00485-3

www.kci.go.kr